

베네치아 운하·고성 수놓은 작품들...이래서 '최고의 미술축제'

April 25, 2022 | 성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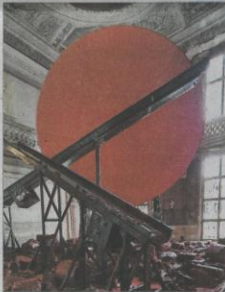
Page 1 of 1

베네치아 운하·고성 수놓은 작품들... 이래서 '최고의 미술축제'

비엔날레 만큼 주목 받는 베네치아 시내 개인전들

사람과 물류가 교차하는 곳엔 돈이 모인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 예술은 꽃을 피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장소다. 지난해 무역을 지배했던 베네치아 공화국(697-1797) 시절에는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티치아노를 비롯한 거장들이 '물의 도시' 곳곳을 수놓았다. 1895년 세계 최대 미술전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창설된 뒤에는 현대미술이 더해졌다. 베네치아는 그렇게 사암 중세-르네상스 시대 미술 및 건축의 정수와 국제 미술의 최신 조류를 나란히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공간이 됐다.

세계 미술시장을 주무르는 거물들이 비엔날레 기간 대부분을 본 전시장과 각 국가관 밖에서 보내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시내 곳곳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설치된 아니시 카푸어의 'Symphony for a Beloved Sun'.



팔라제토 티토에서 열린 하종현 개인전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갤러리·티모갤러리 제공

'단색화 거장' 하종현, 대규모 회고전 '마태 뒷면에 물감 바른 뒤 밀어낸 '접합' 연작부터 최신작까지 망라

카푸어, 피처럼 붉은 도로 흩뿌려 론디노네는 성당에 인간상 매달아 수백년된 공간·현대미술 어우러져

고 말했다.

전시장은 수백년 된 고택 팔라제토 티토. 리처드 해밀턴과 오노 요코, 알렉스 카츠 등 유명 예술가들의 전시를 주최해온 세계적인 미술재단 '베비라과라 마사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재단 측이 하종현에게 먼저 연락해 "대관료도 필요 없으니 작품을 걸어달라"며 전시를 제안했다. 하 화백이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했을 당시 국가관도 없이 이탈리아관



우고 론디노네가 산 지오반니 에반젤리스타에 설치한 작품 'burn shine fly'.

베네치아=성수영 기자

구석을 빌려 작품을 걸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전시는 하 화백의 1962년 초기작부터 올해 최신작까지를 망라했다. 그의 전매특허는 마태 뒷면에 물감을 바른 뒤 밀려내듯 짓겨져 물감을 밀어내는 배합법(摺法)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그의 '접합(Conjunction)' 연작처럼, 단색조 작품들은 '배어나온 듯' 전시장과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도시와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을 되살린 1967년 작 '도시계획백서', 철사와 철조판을 이용한 1974년 작품 등을 통해 그의 예술세계를 폭넓게 감상할 수 있다.

아드리아헤가 내려다보이는 고택 팔라초코보토에서는 최근 세계 미술시장에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실험미술가 이견웅(80)의 개인전 '신체풍경'이 열린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는 화가의 성격처럼 신작만 20여 점을 내놨다. 그의 '바디스케이프(Bodyscape'

연작은 베네치아의 빛깔을 담아내 주목받고 있다. 캔버스 정면 대신 뒤쪽에서 작가의 팔이 닿는 데까지 붓질해 화면에 흔적을 남겼다.

◆수백년 역사 공간서 '현대미술 세계' 15세기에 리모텔링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16세기 지어진 고택 팔라초 만프린에서는 인도 출신 세계적 작가 아니시 카푸어의 개인전이 각각 열리고 있다. 그는 예술가 동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술가로 꼽힌다. 최신 나노 기술로 만들어낸 검은 안료 '반타블랙'의 사용권을 2016년 거액에 주고 사들여 독점했기 때문이다. 반타블랙은 빛을 99.96% 흡수해 입체감을 지우고 마치 공간에 검은 구멍이 뚫린 듯한 효과를 연출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반타블랙을 사용한 여러 작품을 보란 듯이 펼쳐냈다. 앞에서 보면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갖가지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온 형상이 탄

성을 자아내는 설치작품들,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도로를 마구 사용해 섬뜩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설치작도 전시장에 나왔다. 마치 '싫어할 테면 싫어해 보라'는 듯하지만, 각 전시장 앞에는 작품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의 긴 줄이 연일 늘어서 있다.

산 지오반니 에반젤리스타에서 열리는 설치미술 거장 우고 론디노네의 '번사인 플라이(burn shine fly)'는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매력에 적극적으로 느낀 수 있는 전시다. 1300년대 베네치아 형제회가 집회소로 건립한 이곳 천장에는 구름무늬 표현을 한 인간의 형상들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매달려 있다. 현대미술과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시 기획자인 허비에르 폴리스는 "이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베네치아=성수영 기자